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암·백혈병 완치잔치

제8회 소아암·백혈병 완치잔치가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화순전남대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웅진재단의 후원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범희승), 환경성질환센터, 호남권희귀질환센터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날 제8회 완치잔치에는 김혜연(여·19세, 캐슬만병)양 등 완치환아 39명과 환아 가족, 의료진, 화순군 보건관계자, 사회복지 후원단체장, 의과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완치를 축하한다.

소아암과 백혈병을 꿋꿋이 이겨낸 완치자들 모두에게 기념 메달 수여가 있으며, 지금도 같은 질환으로 싸우고 있는 많은 어린 환자들에게 이들 완치자들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된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무료 건강검진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불황으로 인해 성장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사)굿네이버스 광주지부는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전액 검진비용을 부담하며 대성초등학교 등 8개 학교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실시한다.

검진 항목으로는 빈혈, 간기능 검사를 비롯해 20여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며, 검사결과 병이 의심되는 소견자는 2차 정밀검사 및 관내 보건소와 협조해 치료를 연계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주요 항목은 신장·체중 신체측정, 빈혈 등 혈액질환검사 7종, 콜레스테롤검사, B형 간염 검사, 흉부X-선직접촬영 등이다.

건보공단 진료비 연간 지급 내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병식)는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요양기관 등의 진료비 연간 지급 내역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8만1378개 의료기관과 7173개 장기요양기관의 '2008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 내역 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받아 볼 수도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어폰 오래 꽂고 있으면 귓병 생기기 쉽다

인도 카스투르바 의대 연구진

이어폰을 오래 꽂고 있으면 귀 속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세균 온상이 되고, 귓병이 생기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카스투르바 의대 연구진은 젊은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이어폰으로 음악 등을 듣는 정도와 귀 속의 박테리아 증식 정도를 비교했다. 실험 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MP3 이어폰으로 음악을 규칙적으로 오래 들었고, 나머지 절반은 가끔씩만 들었다. 연구진은 이들 귀 속의 박테리아 샘플을 채취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귀 속에서는 가끔씩만 이어폰 음악을 듣는 사람보다 귀 속 박테리아가 최대 수천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전남지역암센터 공동기획

암을 이기자!

〈8〉 잘못 알려진 대장암에 관한 상식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1만5천여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며, 전체 인구에서 암 발생률은 위암에 이은 두 번째로 빈번한 암이다. 이는 서구화돼가는 식생활 습관과 주거환경, 화장실문화의 영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장암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잘못돼 전해지는 몇 가지 상식들에 대해 알아본다.

모두 개복수술 한다?

초기 발견땐 내시경 절제로 충분

수술후 고기 먹으면 안된다?

항암치료 환자는 육류섭취 필수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형제 간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늦어도 40세 이전에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다. 김형록 외과학교실 교수가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암은 수술하면 퍼진다?

암 수술은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암세포가 다른 부위에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수술을 하면 병이 퍼진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암 수술 전 미리 암이 퍼진 정도를 알기 위해 복부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 촬영 등을 통해 병의 진행상태를 평가한다. 그런 후에 수술로서 암과 전이된 부위까지 가능한 모두 부분의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진행이 많이 된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경우 수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 병기 자체가 진행이 많이 되어서 재발이 된 것으로 보아야 맞다.

◇대장암 수술을 하면 모두 장루(인공항문)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장암(결장 및 직장암)은 장루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장폐색(장이 막혀 있어 장이 부어 있는 경우)의 경우, 일시적 장루를 만들었다가 부기가 가라 앉은 후에 복원수술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수술 중 대장을 세척하거나, 수술 전 통기관(스텐트)을 삽입하여, 감압한 후에 수술을 하므로 장루를 시행하는 예가 흔치 않다. 그러나, 너무 항문에 근접하게 진행된 직장암인 경우 항문을 영원히 제거하고 영구 장루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수술 전 항암방사선치료 등으로 암의 크기 등을 줄여서, 가능한 항문을 절제하지 않고 수술하려는 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대장암 수술 후 고기는 전혀 먹지 말아야 한다?

많은 대장암 환자들이 육류를 술, 담배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식품으로 알고 평소 고기를 즐겨 먹던 사람도 대장암 진단 후에는 고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성 지방이 체내 대사과정에서 암 유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암종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육류가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대규모의 임상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오히려 복합 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장암 환자는 기본 체력유지를 위해 육류 섭취가 필수적이다. 고른 영양섭취는 오히려 백혈구 감소를 완화시켜 항암치료에 도움이 된다.

◇대장암이 간이나 폐 등에 퍼지면 치료방법이 없다?

대장, 직장암 수술 후 재발은 약 70%에서 2년 내에 재발하는데 수술 후 주기적인 검사 및 추적이 중요하며, 재발하더라도 조기에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이는 수술부위 근처에 나타나는 국소재발 그리고 간, 폐, 뼈 등에 전이되는 원격전이와 국소 및 전신 재발이 같이 오는 형태가 있다. 그러나 원격전이 즉 간에 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로써 간 절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고주파를 이용한 암덩어리를 괴사시키는 방법 및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치료하지 않은 경우 수개월 정도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간 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25~30% 이상 보고되고 있다. 폐 전이 또한 수술할 경우 5년 생존율이 25~40% 정도여서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수술치료가 필요하다.

대부분 항문 절개없이 수술
치질은 대장암과 관계 없어
3기 이상 환자만 항암 치료

◇대장암에 대한 수술은 모두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

대장 및 직장암의 전단계인 용종이나 아주 초기의 대장 및 직장암을 제거할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직장암 초기에는 배를 절개하지 않고 항문을 통해 암이 있는 부위를 넓게 도려내는 국소절제를 시행할 수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암 수술이 시작돼, 현재 국내외로 대중화돼 있다. 이는 수술 후에 통증경감 및 미용효과 그리고 빠른 회복 등의 장점 외에도 진행성 대장암에 대한 복강경 수술의 결과에 있어서 개복수술보다 낫다는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핵(질)이 대장직장암으로 될 수 있다?

치핵 조직은 항문 근처의 혈관 조직 덩어리 등이 변성돼 조직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것이고 암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치핵(치질)이 대장, 직장암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항문 출혈이 나타나거나 변비 및 쾌변감 상실등 대변보는 습관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 때는 대장 직장암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대장내시경등의 시술이 가능한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장암은 수술 후 반드시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

수술 후 모든 환자가 항암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암이 임파선까지 퍼진 임상 3기 이상이나 재발 위험이 높은 임상 2기 환자의 경우에만 수술 후 항암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된 대장암은 수술 후 항암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대장암은 유전되고, 가족간에 전염이 된다?

대장암은 가족간에 전염이 되지는 않으나 가족성향이 있고(생활 및 식습관이 동일하기 때문), 유전성으로 오는 대장암(가족성 유전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등)이 있다. 유전성 대장암이 아니더라고 직계 자손, 형제간에 2명 이상의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늦어도 40세 이전에는 대장내시경을 권장하고 있다. 〈김형록 전남대 의대 외과학교실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